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2020. 8월

Vol.6

ISSN 2713-9387

문음

코로나19 이후, 해외문화정책 중간점검
세계의 기억, 기록유산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I 세계는 지금 | 정책 동향

- 4 1. 문화예술 :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UAE, 카자흐스탄
- 10 2. 문화산업 : 독일, 벨기에, 헝가리, 미국, 일본, 중국, UAE,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 15 3. 문화재 : 나이지리아, UAE, 터키
- 16 4. 체육 : 독일, UAE
- 17 5. 관광 : 호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러시아, 태국
- 21 6. 문화체육관광통계 :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II 코로나19 관련 | 주재국 문화예술지원현황

- 27 1. 영국
- 28 2. 프랑스
- 30 3. 독일

III 세계는 지금 | 이슈 동향

- 37 1.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에 사용되는 한국의 전통 한지 韓紙
- 42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경제적 회복 경로 전망
- 46 3. 2020년도 고용 전망: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안정

IV 이달의 담론 | ‘세계의 기억’을 담당할,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의

V What's on KCC abroad | 재외한국문화원 8월 활동계획

I

세계는 지금

[정책 동향]

1. 문화예술 : 호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UAE, 카자흐스탄
2. 문화산업 : 독일, 벨기에, 헝가리, 미국, 일본, 중국, UAE,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3. 문화재 : 나이지리아, UAE, 터키
4. 체육 : 독일, UAE
5. 관광 : 호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집트, 러시아, 태국
6. 문화체육관광통계 :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1. 문화예술

문화예술계를 위한 국가별 지원방안

호주

2억 5,000만 호주달러의 창의산업 지원 계획 발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문화예술계와 창의산업 진흥을 위해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100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향후 1년간 보조금과 대출제도를 통해 창의산업(1,120억 호주달러 규모, 약 95조 7,500억 원)과 해당 분야 종사자(60만 명 이상)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예산은 신규 프로그램 제작, 관광 진흥, 지역 영화 제작, 관련 단체 지원 등에 활용될 것이다.

분야	지원액	주요내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광 진흥을 위한 보조금 Seed Investment to Reactivate Productions and Tours	7,500만 호주달러 (약 639억 원)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 코로나 규제 완화 시 콘서트·신규 축제·관광투어·이벤트 개최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건당 7만 5,000 호주달러에서 최대 200만 호주달러(약 6,500만 원~17억 원)까지 지원
대출지원 Show Starter Loans	9,000만 호주달러 (약 757억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행사 등에 대출지원
지역 영화제작 Kick-starting Local Screen Production	5,000만 호주달러 (약 420억 원)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가 주관하는 임시 펀드로 지역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단체 지원 Supporting Sustainability of Sector-Significant Organizations	3,500만 호주달러 (약 295억 원)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와 협력해 공연, 무용, 서커스, 음악 등의 분야에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기관을 지원
창의경제 태스크 포스 Creative Economy Task Force	비에산	호주 연방정부와 호주예술위원회 간 장관급 태스크 포스 협의체를 구성해 창의경제 '잡 메이커(Job Maker)' 계획 실행

(출처: 호주 통신·사이버안전·예술부, 2020.06.25.)

미국 국가예술기금(NEA) 비영리예술단체 지원

미국 국가예술기금(NEA)은 코로나19 긴급구호법(The Cares Act)에 따라 855개 비영리예술단체에 예술활동, 직원 임금, 시설 운영비 등을 목적으로 4,450만 달러(약 535억 2,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846개 단체에는 5만 달러(약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제공되는 한편, 9개 지역 예술기관에 추가로 25만 달러(약 2억 9,8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지원금은 소규모(32%), 중규모(36%), 대규모(32%) 비영리예술단체에 고르게 분배된다.

기관 규모	비율	기관 운영예산 규모	비율
대규모	32%	200만 달러 이상	32%
중규모	36%	50만 달러 이상 - 200만 달러 미만(약 24억 원)	36%
소규모	32%	25만 달러 이상 - 50만 달러(약 6억 원) 미만	16%
		25만 달러(약 3억 원) 미만	15%

(출처: 국가예술기금(NEA), 2020.07.01.)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연구 발표

텍사스 의료 협회(Texas Medical Association)는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시설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고위험군 : 유흥업소, 대규모 종교집회, 스포츠 경기장, 대규모 공연장, 영화관, 테마파크, 피트니스 센터 등
- 중상위험군 : 체육활동(축구·농구·수영 등), 실내 음식점 방문, 항공편 이용
- 중하위험군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방문, 실외운동

(출처: Hyperallergic Media, 2020.07.09.)

LA카운티, 미국 최초로 카운티 차원의 전체 문화정책 채택

LA카운티 문화예술부는 미국 최초로 카운티 차원의 전체 문화정책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LA 카운티는 수백 명의 지역사회 이해 관계자와 국가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해당 정책을 고안해냈으며, 정책의 목표는 문화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커뮤니티가 더 쉽게 문화생활에 참여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하는데 있다.

(출처: LA카운티 문화예술부, 2020.06.23.)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상세내용 발표

문화청은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 약 10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엔(약 233만 원)과 2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에는 최대 150만 엔(약 1,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급부금(給付金) 제도를 발표했다. 제1차 추경예산에서 극장이나 박물관 등의 시설에 최대 400만 엔(약 4,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더하면,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총액은 약 500억 엔(약 5,500억 원) 정도가 될 예정이다.

문화청은 경제산업성의 기존 보조금 제도(수입 감소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와 달리, '총괄단체의 사전확인증'만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동경력과 사업소득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해당 지원금은 음악, 연극, 영화, 아악과 노가쿠, 가부키, 만담·재담 등의 분야에 지급될 계획이며, 서커스, 거리 공연, DJ 등 문화청이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분야도 새롭게 포함한다. 문화청은 조만간 '라인(LINE)'으로 공식 계정을 신설해 지원형태와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위한 긴급종합지원>으로 예산 560억 엔 증액

일본 정부는 2020년 2차 추경예산에서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정책으로 예산을 560억 엔(약 6,220억 원) 증액했다. 신규예산은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계속 지원(509억 엔, 약 5,600억 원), 문화예술 수익강화 사업(50억 엔, 약 558억 원), 문화시설 감염병 전파방지 대책마련 사업(약 2억 엔, 약 22억 3,000만 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취소된 공연이나 경기 티켓에 대해 환불금을 지급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위한 긴급종합지원> 정책 중 가장 큰 금액을 배당받는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계속 지원 사업은 7월 10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사업명	예산내역	금액	주관 기관
극장·콘서트홀·박물관 내 감염병 예방	문화시설 감염병 전파방지 대책마련 사업	400만 엔(약 4,400만 원) 한도	문화청
박물관 시간제 관람 시스템 도입		300만 엔(약 3,300만 원) 한도	
박물관 신규 감상 모델 도입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문화시설 수익 강화 사업	1,000만 엔(약 1억 1,100만 원)	문화청
박물관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연계 지원		3,000만 엔(약 3억 3,500만 원)	

프리랜서 예술가 지원		20만 엔(약 220만 원) 한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가진 프리랜서 지원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계속 지원	150만 엔(약 1,600만 원) 한도	문화청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		150만 엔(약 1,600만 원) 한도	
중·대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수익 강화 사업	사업 규모에 비례	문화청
취소된 (예술)감상교실 지원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사업	전액 지원	문화청
지역주민 참가형 활동 실시	지역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예술가가 주최하는 아트 캐러밴*	한 지역 당 5,000만 엔 (약 5억 5,800만 원)	문화청
취소된 문화예술 행사의 티켓 금액 기부	티켓 환불청구권 포기 시 세제혜택 제공	티켓 가격의 40%	문화청
공연 영상 촬영, 해외 공개	콘텐츠 글로벌 수요 창출 촉진 보조금	5,000만 엔 (약 5억 5,800만 원) 한도	영상산업진흥기금
중소·소규모 사업자 지원	지속화 급부금**	(법인) 200만 엔(약 2,2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 100만 엔(약 1,100만 원) 한도	중소기업청
소규모사업자 판로개척 지원	지속화 보조금	100만 엔(약 1,100만 원) 한도	일본상공회의소
임차료 부담 경감	임차료 지원 급부금	(법인) 600만 엔(약 6,700만 원) 한도 (개인사업자) 300만 엔(약 3,300만 원) 한도	중소기업청
(직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고용주 지원	고용 조정 지원금	최대 1인 1일 15,000엔 (약 17만 원) 한도	후생노동성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출	개인사업자 대상 긴급 소액 자금 대출	20만 엔(약 220만 원) 한도	후생노동성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 지원	각 지자체 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 교부금 지급	각 지자체별 실시	일본 내각부
각 지자체 별 지원	코로나19에 대한 각 지자체 별 정책 지원	각 지자체별 실시	(재)지역창조

* 사업명 : 지역 문화예술 관련단체와 예술가가 주최하는 아트 캐러밴

· 사업취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연기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돋우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 사업규모 : 약 13억 엔(약 147억 6,300만 원)

(출처 : 일본 문화청, 2020.07.20.)

** 나라에서 지급하는 급부금

중국 국가판권국, <사진 저작권에 관한 통지> 발표

국가판권국은 사진의 저작권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진 저작권에 관한 통지>(이하 '사진 저작권 통지'라 지칭)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서 예술과 관련된 최초의 규범적 조치이자 사진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문·출판·문화예술·사진 업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저작권통지는 아래와 같은 7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 ① 사진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보도에 사용된 사진은 시사 보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 ② 사진의 제목이나 의도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리 단체의 법적 지위와 직책을 강화한다.
- ③ 사진 전문업체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재산을 포기한 사진 저작물을 수집·정리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명의로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더불어 사진 전문업체의 허위 저작권, 위조 수권, 부당한 저작권 남용 행위 등을 규제한다.
- ④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알림과 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⑤ 교과서용 도서의 법정 허가사용에서 사진작가의 보상권을 강조한다.
- ⑥ 각 측의 협력을 장려하고,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질서를 규범화한다.
- ⑦ 행정법 집행에 있어 저작권 관련 인정기준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재검토하고 권리선언과 워터마크는 저작권 분쟁의 단독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국가판권국은 지침 발표와 함께, 향후 저작권 관련 집행부서를 통해 사진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단속하고, 사진 전문 업체가 위조나 허위 수권으로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경로를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중국 국가판권국, 2020.06.11.)

'라흐마니노프 국제 콩쿠르' 개최 추진

러시아 문화부 차관은 7월 9일 '라흐마니노프 국제 콩쿠르' 개최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콩쿠르는 3개 분야(△피아노, △지휘, △작곡)로 진행되는데, 모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재능을 보인 분야이다. '라흐마니노프 국제 콩쿠르' 개최를 제안한 러시아 공훈 예술가 데니스 마추예프는 "해당 콩쿠르는 2023년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며, 심사위원들은 세계적 음악스타로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콩쿠르는 △라흐마니노프 음악유산 홍보 △러시아 문화유산 보존 △국제 문화협력 강화 △재능 있는 신진 음악가 발굴·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라흐마니노프 국제 콩쿠르는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와 함께 러시아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러시아문화부 누리집, 2020.07.09.)

UAE, '국가경쟁력 순위' 중 문화 분야 세계 4위 선정

UAE 문화지식개발부 장관은 UAE가 '국가경쟁력 순위' 중 문화 분야에서 세계 4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순위는 통계자료와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성, 정부 효율성, 비즈니스 효율성, 인프라 등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됐다. UAE 장관은 해당 성과가 UAE가 창의산업 분야를 진흥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출처 : 더 내셔널, 2020.06.17.)

카자흐스탄 문화계 국제협력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계 국제협력을 위한 독립국가연합(CIS)¹ 회원국 간의 화상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2020년 카자흐스탄 쉼켄트에서 예정된 '독립국가연합 문화 수도'²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개최 불가능한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 카자흐스탄 문화체육부, 2020.07.09.)

1 독립국가연합(CIS)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10개의 공화국 연합체를 지칭

2 CIS 회원국 내 도시 가운데 역사적 가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시를 선정하는 행사

2. 문화산업

문화예술 산업에 디지털 기술 활용 증가

독일

‘2020 유럽 창의 산업’ 10월 베를린에서 개최

2020 유럽 창의 산업 정상회의(European Creative Industries Summit 2020)가 10월 베를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정상회의는 유럽 창의적비즈니스 네트워크, 연방 경제에너지부, 연방정부 문화창의산업역량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2010년 처음 개최되었다. 회의의 목표는 경제 개발과 사회복지 측면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혁신과 교차 혁신(cross innovation)을 이해하고, 문화와 창의경제의 영향력을 강화해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회의는 정치적 의사 결정자, 창의허브, 연구원, 교육자, 그리고 문화·창의산업 종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처 : 연방정부 문화창의산업역량센터 누리집)

유럽 창의 산업 정상회의의 누리집 (사진 출처: 주독일 한국문화원 제공)



벨기에

중소 문화기관 연합 온라인 예약 사이트, UTick 운영 활성화

기존에는 티켓 예약·환불 시 문화기관의 개별 누리집을 참조해야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화기관 예약 통합 사이트, UTick의 운영이 활성화 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연과 문화행사관련 여러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극장 내 행정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왈로니·브뤼셀 지역 140여 개 문화기관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입장권 판매, 환불 등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중앙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사이트에는 예약 상황, 수익금, 목표 판매까지 남은 금액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기되어 극장 관계자들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소된 문화행사 입장권은 환불처리하기보다 해당 금액에 준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향후 다른 문화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은 9월 이후에 재개될 예정이지만, 정기회원권 구입을 통해 향후 공연을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이런 대비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전 상황과 비교해 80% 수준의 정기회원권 판매가 진행 중이며, 향후 상황도 더욱 호전될 전망이다.

(출처 : LE SOIR, 2020.06.16.)

헝가리

외국영화 제작 유치로 2019년 헝가리 영화산업 수익 대폭 증가

내셔널 필름 인스티튜트(National Film Institute)에 따르면, 헝가리 영화산업 수익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644억 HUF(약 6,477억 3,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총 수익의 94%가 헝가리 내 외국영화 제작으로 창출됐다. 2019년도 헝가리에서 제작된 영화는 총 319편이며, 이 중 26%인 83편이 외국영화이고, 기타 8건은 공동제작 건이었다.

연도별 헝가리 영화산업 수익 (십억 HUF)	2015	2016	2017	2018	2019
	51.3	125.5	108.2	110.1	164.4

외국인 입국제한 정책에도 영화 촬영 관계자의 헝가리 입국 허용

헝가리 국립영화원 원장은 주간지 《Variety》와 인터뷰를 통해 할리우드 영화·드라마 촬영 프로젝트가 헝가리 내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외국인 영화 촬영 관계자의 헝가리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 발표했다. 여기엔 EU이사회가 입국제한을 권고한 미국 국적의 관계자도 포함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헝가리 내 영화 제작은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내 모든 사운드 스테이지¹는 현재 연말까지 모두 예약된 상황이다.

¹ 방음처리 된 격납고 비슷한 건물 혹은 방을 지칭하며 주로 영화나 TV 드라마 촬영에 이용

미국

공연 전문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 '마르퀴TV(MarqueeTV)' 개시

마르퀴TV(MarqueeTV)의 창립자는 2018년 영국에서 공연전문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인 '마르퀴TV(MarqueeTV)'를 선보이며, 공연예술의 미래는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서비스는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오페라 내셔널 드 파리 등 국제 공연장에서 열린 수준급 공연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계정

처럼 운영되는데, 구독비용을 내면 가입자는 예술에 관한 다양한 공연영상과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다. 구독 비용은 주당 4.99달러(약 6,000원), 월간 8.99달러(약 17,000원), 연간 89.99달러(약 107,000원)이며 현재 할인된 요금은 연간 62.99 달러(약 7만 5,000원)이다. 마르퀴TV는 격리기간 중에도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공연장과 기업이 공연예술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영상 제공에 관심을 갖게 했다.

(출처 : 워싱턴포스트, 2020.06.22.)

일본

「도쿄 게임쇼」 최초로 온라인 행사 개최 발표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는 코로나19로 취소된 「도쿄 게임쇼 2020」을 온라인 이벤트로 전환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이벤트는 「도쿄 게임쇼 2020」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게임사 주최 공식 프로그램, e-Sports 대회, 최신 게임에 대한 토크 세션 등이 기획되어 있다. 개막 전날인 23일에는 게임 관련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도쿄 게임쇼 2020 온라인」 공식 누리집)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웹소설 관리강화 관련 통지 발표

국가신문출판서는 최근 웹소설 등 인터넷 문학의 질서규범과 출판물 관리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문학 출판 관리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는 웹소설 출판사가 플랫폼의 엄격한 책임 주체로서 콘텐츠 심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용검열을 강화할 것과 창작자 실명등록제 도입, 작품 등재 규칙 신설, 서비스 약정 명시, 작품정보 관리강화 등을 통해 사용자가 정확하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출처 : 국가신문출판서, 2020.06.05.)

UAE

‘샤르자 도서 박람회(Sharjah International Book Fair)’, 방역조치에 따라 취소 없이 개최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예정된 ‘샤르자 국제 도서 박람회’는 엄격한 방역조치에 따라 취소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샤르자 도서출판관계자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출판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번 박람회가 도서산업 재개를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또한, 박람회 기간 동안 참가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높은 국제보건규칙과 안전표준에 따른 상세한 예방 프로토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더 내셔널, 2020.07.01.)

러시아

러시아 최초 국가예술장인 챔피언십 ‘Art Masters’ 개최

러시아 최초 국가예술장인 챔피언십인 ‘Art Masters’가 7월 7일 개최되었으며, 챔피언십의 세부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 분야 : 조명, 무대장치, 의복, 음향, 무대 디자인, 영상 디자인, 가상현실 디자인, 게임 디자인, 웹 디자인,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16개 분야
- 참가 자격 : 18-35세의 전문가(전문교육 자격증 불필요)
- 진행 방법 : 온라인 신청(07.07.~08.11.) → 이론/실습과제 수행(08.17.~08.28.), 심사 → 예선 통과자 2차 경연, 심사(10.12.~10.15.) → 최종심사(온라인 투표 포함)
- 챔피언십 이사회 구성 : 부총리,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국영방송 사장, 모스크바 부시장, <모스필름> 사장, <Mail.ru 그룹> 사장 등, 이사회 위원장은 대통령 행정실 세르게이 키리엔코 부실장

(출처 : 러시아문화부 누리집, 2020.07.07.)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업무 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은 국가 간 디지털 교역의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협정으로, FTA에서 다루는 상품, 서비스의 교역을 넘어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규율과 협력 요소를 포함한다. 싱가포르는 디지털통상협정 확대를 통해 신기술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교역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국-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에 관한 공동각료성명 주요 내용>

- 디지털 시대에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관계 강화
- 디지털 경제를 활용해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 간 동반자 관계 심화
-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강화해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전자상거래 협상에 대한 지지 표명
- 추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 희망

인도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성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인도 내 OTT 플랫폼 가입자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인도브랜드자산재단(IBEF)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OTT 시장 규모는 2023년에 50억 달러(약 5조 9,460억 원)에 이를 것이며, 2025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용량이 가장 큰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Youtube)이며 디즈니 인디아(Disney India)가 소유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핫스타(Disney+ Hotstar)가 2위를 차지한다.

(출처 : Mordor Intelligence)

3. 문화재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국립박물관기념관위원회(NCMM), 나이지리아 유물 불법판매 중단 요청

미국은 강화된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으로 의심되는 문화재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29일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에는 나이지리아, 가봉, 베냉 등지의 서아프리카 유물의 경매가 예정돼 있었다. 당시 나이지리아 국립박물관기념관위원회(NCMM)는 도난당한 문화재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 6월 17일 자료 크리스티에 서한을 보내 경매예정인 아프리카 유물에 대한 판매를 중단 요청했다.

(출처 : The Guardian, 2020.06.21.)

UAE 터키의 하기아 소피아(성 소피아 성당) 모스크 전환 결정에 대해 우려 표시

UAE 문화지식개발부 장관은 터키가 수십 년간 박물관으로 운영된 하기아 소피아를 사원으로 전환하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장관은 하기아 소피아 같은 유적은 국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모든 민족과 문화의 공동 문화유산이라고 언급했다. 유네스코 부국장 역시 “하기아 소피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국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네스코와 사전논의 없이 건물 구조나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행방안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출처 : 더 내셔널, 2020.07.11.)

터키 방역조치와 함께 400개의 고고학 발굴작업과 149개의 지표조사 재개

터키 문광부 문화재·박물관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방역조치와 함께 400개 지역에 대한 고고학 발굴작업과 149개의 지표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고고학 발굴 외에도 수중측량, 지표조사 등 다양한 절차를 포함한다.

(출처: Hurriyet 신문, 2020.06.01.)

4. 체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행사 진행

독일

2020년 스포츠 유럽주간 행사,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DOSB)은 '2020년 스포츠 유럽주간(Die Europäische Woche des Sports) 행사'¹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7일간(09.23.~09.30.)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 측은 큰 행사 대신 도시 전역에서 위생규정을 준수하는 임시행사나 디지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언급했다. 행사는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로 전개될 것이며, 정류장이나 보행자 구역에서 간단한 운동을 진행하거나 스포츠전문가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하는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출처 :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 누리집)

¹ 유럽인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위원회가 2015년부터 매년 개최국을 지정해 진행하는 스포츠 참여행사로, 대회가 처음 열린 2015년에는 참가자 500만 명, 참여행사 7,000여 개에서 2019년에 참가자 1,200만 명, 참여행사 48,000여 개로 증가

UAE

아즈만 관광개발부, '화상 마라톤 대회(Virtual Half Marathon)' 개최

아즈만 관광개발부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해 화상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참가자가 스마트 기기와 앱을 이용해 7월 1일부터 31일간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실내의 특정 코스에서 개인별 10km 혹은 21.1km 마라톤을 실시한 후, 해당 정보를 대회 주최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출처 : 에미레이트 통신사, 2020.07.01.)

5. 관광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관광 통계와 진흥책

호주

코로나19로 인한 호주 외래 관광객 영향 통계 발표

호주 무역관광투자 장관(Minister for Trade, Tourism and Investment)은 2020년 1분기 외래 관광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호주를 찾은 외래 관광객은 28% 감소한 170만 명이고, 호주 내 관광 소비액도 27% 감소한 16억 호주 달러(약 1조 3,700억 원)로 나타났다. 2020년 3월 기준, 외래 관광객 수는 60% 감소했고 소비액도 39%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폐쇄로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호주 무역관광투자부, 2020.07.08.)

미국

미국 여행협회, 2020년 해외여행 소비지출 규모 전년 대비 75% 감소 예측

미국 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전년 대비 미국 국내여행 소비는 40% 감소했으며(2019년 9,720억 달러, 2020년 5,830억 달러), 해외여행 소비도 75% 감소해(2019년 1,550억 달러, 2020년 390억 달러), 총 여행소비규모는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여행협회는 전례 없는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위해 미 의회와 협의해 급여 보호 프로그램, 세금공제, 코로나로 인한 소송 보호, 팬데믹 보험 규모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브라질

해양수질 관리를 위한 '파란깃발(Bandeira Azul)' 인증제 실시

브라질 관광부는 2020년 여름부터 '파란깃발(Bandeira Azul)'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파란깃발'은 친환경 관광지 인증제로 지역 당국과 해변 관리자가 수질, 환경관리, 환경교육, 안전 네 가지 항목을 꾸준히 관리하고 평가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 브라질 관광부, 2020.07.08.)

아르헨티나 포스트 코로나 관광 활성화 정책 발표

아르헨티나는 관광 서비스 구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행해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에 대해 논의 중이다. 쿠폰은 호텔, 항공권, 여행 패키지 상품 등 관광 서비스 구매 시 발급되며, 2021년도까지 사용 가능하다. 해당 정책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 승인 대기 중이며, 2020년 하반기에 3억 3,000만 달러(약 3,970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출처 : Infobae, 2020.07.28.)

이집트 관광유물부, 관광업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조치 발표

이집트 관광유물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관광업 재개를 위한 정부 인센티브 조치를 발표했다.

<이집트 관광업 재개를 위한 주요 인센티브>

- ① 2020년 10월 31일까지 홍해, 남시나이, 마트루주 방문객 관광 비자 면제
- ② 2020년 10월 29일까지 현 항공편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장
- ③ 항공 연료 10% 할인
- ④ 여객기 이·착륙과 탑승 수수료 50% 할인
- ⑤ 2020년 10월 31일까지 홍해, 남시나이, 마트루주 직항 이용객 지상 서비스 20% 할인
- ⑥ 고등유물부 관리 하에 있는 모든 박물관과 유적지 티켓 20% 할인
- ⑦ 15일 동안 이집트 항공(Egypt Air)과 카이로 항공(Air Cairo)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박물관과 유적지에 대한 추가 할인 적용

(출처 : 이집트 관광유물부 공식 누리집, 2020.06.14.)

러시아 코로나19 관련 러시아 관광청장 발표내용 요약

· **관광청의 연방정부 직속기관 승격 관련**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경제적 위상을 잘 반영하는 조치로 보이며, 러시아 관광청의 권한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

· **러시아 국내 관광상품 개발의 중요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프로젝트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현재 러시아 인바운드와 국내관광 목적지가 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크림, 크라스노다르(소치), 카잔 등 5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의 인바운드 관광 성공은 관광상품, 숙박, 즐길거리가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졌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보조금 지원** 알타이, 하카시아, 바이칼, 칼리닌그라드 지역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유치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호텔 건립에 대해 보조금 지원** 러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총 28,000여 개 호텔 중 등급을 인정받은 호텔은 약 12,000개이며, 이 중 18%만이 최근 10~15년 내 리노베이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관광청은 호텔 건립 추진 시 10% 이상의 높은 대출 이자율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2021년부터 신규 호텔 건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업계 손실액** 하계 실적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으로 보이나, 연간 인바운드와 국내관광 시장 규모가 3조 7,000억 루블(약 66조 6,000억 원)임을 감안할 때 현재 1조 5,000억 루블(약 27조원) 정도의 손실이 추정된다. 하계 인바운드 관광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당분간 일부 위생준수 조치가 지속될 예정이다.

· **해외여행 시기**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폐쇄한 상태라 해외여행 가능시기를 짐작하긴 어려우나, 러시아는 해외여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러시아 여행협회 누리집, 2020.06.18.)

태국

태국 관광 진흥책,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

태국 정부는 국내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총 224억 바트(약 8,530억 원) 규모의 관광 진흥책을 발표했다.

- **배경** : 태국이 3월 26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일부 취업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 관광객은 여전히 태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 수요를 국내 관광 진흥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태국 정부는 10월 말까지 'We travel together', 'Moral support'란 관광 진흥책을 시행 예정이다.

'We travel together' 패키지

- 총 규모 : 200억 바트(약 7600억 원)
- 자격조건 : 태국 ID카드 소지자, 18세 이상
- 세부내용
 - 20억 바트(약 760억 6,000만 원) 200만 명 : 국내 항공, 버스, 자동차 렌탈 요금 지원
 - 180억 바트(약 6,850억 원) : 관광지(본인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의 숙박, 음식, 기타 관광비용 등을 각각 최대 40%까지 지원

숙박료 40% 지원	최대 3,000바트(약 11만 5,000원) / 1박당 지원 (최대 5박까지 가능)
매일 600바트 (약 2만 3,000원) 상당의 쿠폰 지급	식당·관광지 입장료 할인 (60% 본인 부담, 나머지 40%는 쿠폰사용 가능) 호텔에서 매일 17:00이후 쿠폰 지급
항공료 40% 지원	편도 한 좌석당 1,000바트(약 3만 8,000원) 지원 1실당 숙박 인원 최대 2명까지 항공료 지원, 호텔에 체크인하는 인원과 항공권을 구매한 인원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최대 10좌석까지 가능

- 관광부에서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호텔과 식당은 7월 1일부터 We travel together(www.เราเที่ยวด้วยกัน.com) 사이트에 등록 가능하며 일반인은 15일부터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We travel together 공식 사이트)

‘Moral Support’ 패키지

- 총 규모 : 24억 바트(약 913억 2,000만 원)
- 대상자 : 지방 소도시 병원의 의료진, 120만 명의 의료 봉사자
- 내용 : 코로나 극복의 주역인 의료진과 의료 봉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바트 (약 76,000원) 이하의 단체 휴가 관광비용을 지원
- 기대효과 : 의료진과 의료봉사자들의 휴가로 인해 태국 내 여행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태국 재무부는 GDP의 0.2~0.3% 증가를 목표로 주말 관광 외에도 평일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지원 패키지를 구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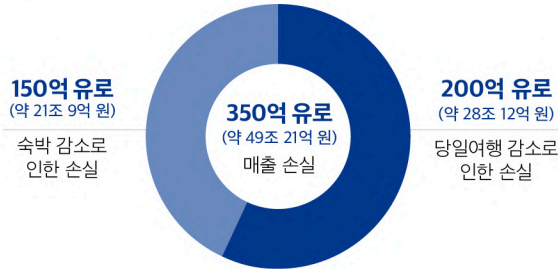
(출처 : 방콕 포스트, 2020. 07. 08.)

6. 문화체육관광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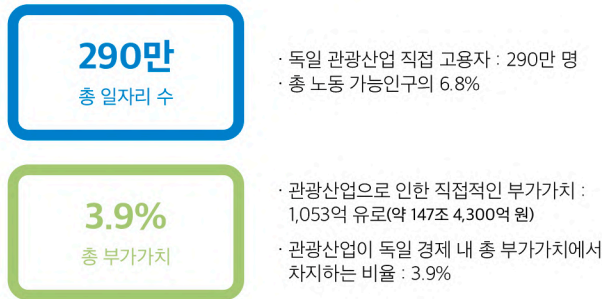
독일

독일 관광사업 관련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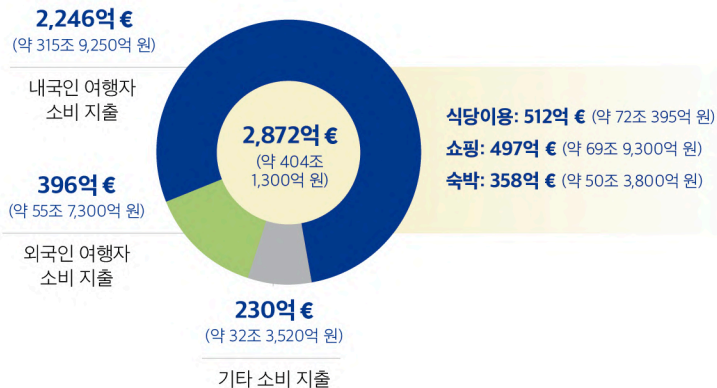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독일관광산업 현황(3~5월 기준)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경제적 요인



독일의 관광 소비 비율



당일치기 여행을 통한 부가가치

35억

당일 여행

2018년 독일인들의
당일 여행·출장 횟수

28.80유로

(약 4만 원)

독일 당일치기 여행자의
여행지에서 평균 지출 소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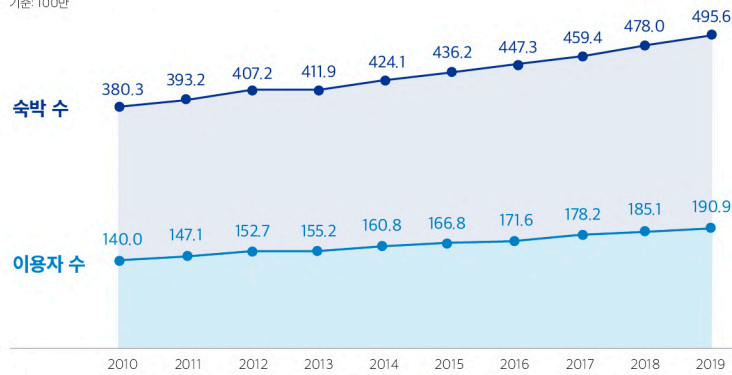
1,080유로

(약 151조 2,780억 원)

2018년 독일 국내 당일치기
여행자로 인한 매출액

최근 10년 독일 내 숙박업소(침대 개수 10개 이상) 이용자 수와 숙박 일수 비교

기준: 1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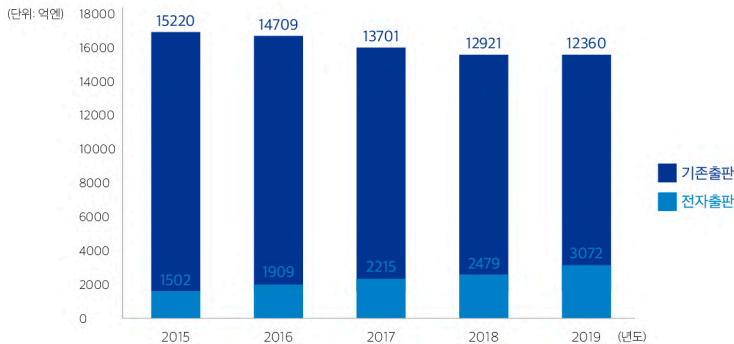


(출처 : 독일 여행협회)

불법 만화 업로드 실태

2019년 일본의 전자 서적 시장은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072억 엔(약 3조 4,100억 원)으로 처음으로 3조 원대를 돌파했다. 그중 전자 만화는 전년 대비 29.5% 증가한 2,593억 엔(약 2조 8,800억 원)으로 시장 규모가 약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 만화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불법 만화 업로드 사이트 역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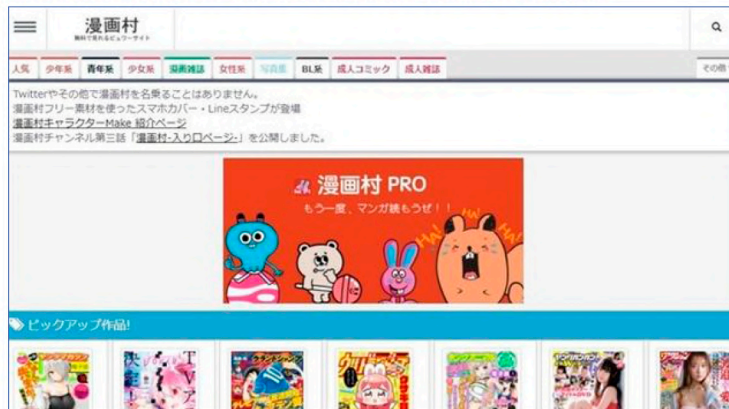
기존 출판시장과 전자출판시장 합계



(출처: 일본 전국출판협회 발간, 출판월보 2020년 1월호에 실린 출판시장 동향)

불법 업로드 사이트 '만가무라(漫画村)'에서 약 3,000억 엔(약 3조 4,035억 원)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만화가와 출판사의 수입이 20% 감소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또 다른 불법 업로드 사이트인 '하루카유메노시(はるか夢の址)'로 의한 피해액은 약 731억 엔(약 8,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모두 폐쇄됐으나 일본의 출판홍보센터(出版広報センター)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업로드 사이트는 아직도 500개 이상으로 짐작된다. 이중 상위 10개 사이트는 월 이용자가 6,500만 명 이상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불법 만화 업로드 사이트 만가무라(漫画村)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통계 (2020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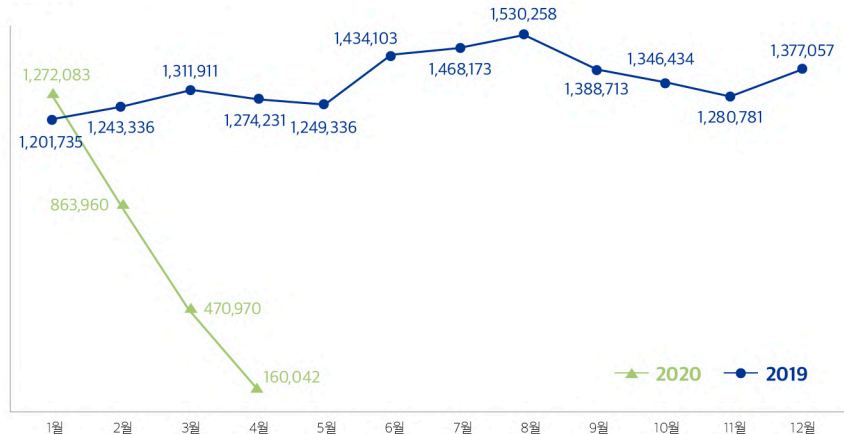
2020년 5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총 163,64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6.90% 감소했으며, 주요공항 3곳(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발리, 바탐)의 입국자 수는 약 99% 감소했다.

국적별 입국자 수는 동티모르 81,486명, 말레이시아 66,385명, 중국 1,878명, 필리핀 1,819명, 싱가포르 1,335명 순이다.

(출처 : 관광창의경제부, 2020.07.06.)

인도네시아 연례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통계 2020

기준: 100만



중국

문화여유부, <2019년 문화·관광 발전통계 공보> 발표

2019년 문화여유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전국 문화·관광 관련 업체는 약 35만 개이고, 관련 종사자는 약 5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예술공연단체는 17,795개로 전년 대비 672개가 증가했으며, 연간 공연 관람객 수도 4.6% 증가했다. 시민 문화기관은 전년 대비 391개 감소했으나, 연간 각종 문화행사 개최비용은 재작년과 비교해 11.7% 증가했다. 2019년 문화·관광 사업비용은 약 1,065억 원이며 전국 재정 총지출의 0.45%로 2018년 대비 0.03% 증가했다.

광전총국, <2019년 전국 TV·라디오 방송업계 통계> 발표

7월 8일, 광전총국이 발표한 <2019년 전국 TV·라디오방송 업계 통계 공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 전역의 TV·라디오 방송업계 총매출액은 8,107억 4,500만 위안(약 1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2% 증가했다. 이 중 재정보조수입이 801억 9,700만 위안(약 13조 원), TV·라디오와 인터넷 영상업무로 발생한 실제 매출액이 6,766억 9,000만 위안(약 115조 원),

기타 매출액이 538억 5,800만 위안(약 9조 원)이었다.

2019년 말까지 중국에서 TV·라디오와 인터넷 영상관련 사업을 전개한 기구는 약 47,000여 개이며, 이 중 방송 송출기구가 2,591개, 프로그램 제작경영 종사기구가 약 33,000여 개이다. 또한, 방송업계 종사자는 99억 4,400만 명으로 2018년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출처 : 광전총국, 2020.07.08.)

단오절 연휴 관광 통계 발표

문화여유부는 금년 단오절 연휴(06.25.~06.27.) 기간 내 중국 국내 관광객은 4,881만 명, 국내 관광 수입은 123억 위안(약 2조 1,02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은 70% 감소했다. 베이징 관광객은 135만 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76.8% 감소했고, 관광 수입은 7,240만 2,000위안(약 123억 7,570만 원)으로, 75.9% 감소했다.

(출처 : 문화여유부, 2020.06.27.)

II

코로나19 이후

[주재국 문화예술지원현황]

영국 | 프랑스 | 독일

코로나19 이후 영국정부의 최초 지원 방안

- 영국은행(Bank of England), 열흘 사이 기준금리 최저수준으로 인하 (0.75% → 0.25%(03.11) → 0.1%(03.19))
- 영국정부, 코로나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3,300억 파운드(약 500조 원) 투입 계획 발표(03.17)
- 영국정부, 〈Guidance: COVID-19: Support for businesses〉 경제 지원책 발표(03.23) 상기 정책 중 주요 문화·예술 분야 지원책은 아래와 같음

- 영국문화예술위원회, 1억 6,000만 파운드(약 2,400억 원) 긴급지원금 정책 발표(03.24)
-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NPOs)¹로 지정된 841개 문화예술기관에 9,000만 파운드(약 1,400억 원) 추가 지원
- 현 NPOs 기관으로 지정된 단체의 NPOs 지위를 2023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 NPOs 이외에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문화기관에 각 기관 당 35,000 파운드 (약 5,500만 원)를 상한으로 총 5,000만 파운드(약 780억 원) 지원 계획 발표
- 영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지원하는 음악교육허브(Music Education Hubs)²와 창의적 인물·공간(Creative People and Places)³등 주요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창의산업 전문가·문화계 근로자(creative practitioners and cultural workers)에게 1인 당 2,500파운드(약 390만 원)를 상한으로 총 2,000만 파운드(약 308억 6,300만 원) 지원 계획
- 음악, 연극, 무용, 시각예술, 문학, 융복합 예술, 박물관, 도서관이 지원분야이며, 지원대상으로 안무가, 작가, 통역가, 프로듀서, 큐레이터, 디자이너, 예술 감독, 아티스트, 큐레이터 등을 포함

1 영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영국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4년마다 한번 씩 선정 (2018년~2022년, 총 841개 선정, 총 지원금 규모 약 2조 4,000억 원, 대다수의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포함)

2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 음악교육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예술기관 등을 지원하며, 2020년에는 연간 7,600만 파운드(약 1,173억 2,500만 원)를 지원할 계획

3 문화예술·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하위 33%의 지역(6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4년간 3,900만 파운드(약 602억 937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사업

문화·예술·문화유산 분야에 15억 7,000만 파운드(약 2조 4,000억 원)의 지원계획 발표

영국 문화부 올리버 다우든 장관은 7월 5일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극장 등 각종 문화예술 기관을 위한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 기관은 영국정부에 지원금이나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평가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잉글랜드
 - 문화예술기관 지원 : 11억 5,000만 파운드(약 1조 7750억 원) 지원
 - 보조금 8억 8,000만 파운드(약 1조 3,000억 원), 융자 2억 7,000만 파운드(약 4,000억 원)
 - 문화유산 분야 : 국가 문화예술기관과 영국 헤리티지신탁에 1억 파운드(약 1,500억 원) 지원
 - 문화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영국 문화시설과 문화재 건설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자금 1억 2,000만 파운드(1,800억 원) 지원
- 북아일랜드 : 3,300만 파운드(약 500억 원) 지원
- 스코틀랜드 : 9,700만 파운드(약 1,450억 원) 지원
- 웨일즈 : 5,900만 파운드(약 890억 원) 지원

영국극장협회, 음악공연장협회, 로열 오페라하우스, 국립극장 등 많은 문화기관은 이번 지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이번 지원책이 문화 분야의 모든 일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 : BBC, 2020.07.07.)

영국정부, 서비스업·관광업계에 한시적으로 부가세 인하

영국정부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서비스·관광업계(hospitality and tourism)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2020.07.15.~2021.01.12., 6개월 간) 20%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숙박시설과 관광지 입장료뿐만 아니라 음식과 무알콜 음료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bbc, 2020.07.15.)

프랑스

프랑스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피해 현황

프랑스 문화산업은 연간 약 970억 유로(약 133조 1,900억 원)의 수익과 470억 유로(약 64조 5,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 프랑스 문화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액은 약 223억 유로(약 30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연간수익은 전년 대비(7.1. 기준) 2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공연예술계(전년 대비 연간 수익 : -72%), 문화재(-36%), 시각예술(-31%), 건축(-28%)

문화예술계에 50억 유로의 지원금 제공

문화부는 지난 3월 이후 총 50억 유로(약 6조 8,9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문화예술·미디어계를 지원해왔으며 향후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 발표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문화예술 지원책 (국가 보증 대출, 연대기금, 임금 지원, 납세 감면 등)

(28억 7,000만 유로, 약 3조 9,900억 원)

- 정부 보증 대출 (22억 유로, 약 3조 273억 원)
- 긴급 연대기금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등에 1,500유로(약 200만 원)씩 지급)
(2억 3,000만 유로, 약 3,100억 원)
- 업계 종사자의 일시적 실업에 대한 임금지급 지원 (세전 임금 기준 70% 수준으로 보상)
(4억 4,000만 유로, 약 6,000억 원)

※ 2020.05.11. 이후 프랑스 내 봉쇄령이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기금 지원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는 중이지만 문화, 관광, 이벤트, 체육 분야에 한해서는 2020년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

2) 문화부 산하기관 특별 지원금 (1억 2,000만 유로, 약 1,600억 원)

- 국립음악센터(CNM), 국립시각예술센터(CNAP), 국립도서센터(CNL), 국립영화센터(CNC), 사립극장지원협회(ASTP) 포함

3) 문화예술 분야 사업체 대상 납세 연기 혹은 감면 지원

(10억 6,000만 유로, 약 1조 4,500억 원)

- 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직접세 납부기한 연기 혹은 면제를 비롯해 임차료·공공요금 납부기한 연장, 문화예술기관 토지세 감면 등(6억 6,000만 유로, 약 9,000억 원)
- 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사회 보장 부담금과 고용관련 세금 납부기한 연기 혹은 감면(4억 유로, 약 5,500억 원)

4) 앵테르미탕 확장, 문화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9억 5,000만 유로, 약 1조 3,000억 원)

- 비정규직 예술인이 관련 수혜를 받기 위해 연간 충당해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 연간 만료기간 연장 지원

※ 주요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내용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전체 지원 기금 50억 유로 중, 복합 사업이 아닌 각 분야별 총 지원 기금은 약 40억 1,000만 유로(약 5조 6,230억 원)

1) 공연예술·음악 분야 : 총 7억 600만 유로 (약 9,900억 원)

- 국립음악센터(CNM) 지원 기금 (5,000만 유로, 약 701억 원)
- 페스티벌 지원 기금 (1,000만 유로, 약 140억 2,000만 원)
- 지자체 내 공연예술 분야 지원 (2,450만 유로, 약 343억 5,000만 원)
- 국립 공연예술 기관 지원 (1,140만 유로, 약 159억 8,000만 원)
- 공연예술 분야 산업체 지원 (5억 6,000만 유로, 약 785억 원)
- 음악 분야 산업체 지원 (4,500만 유로, 약 630억 780만 원)

2) 시각예술 분야 : 총 3억 9,100만 유로 (약 5,480억 원)

- 시각예술 분야 지원 (3억 8,500만 유로, 약 5,400억 원)
- 국립시각예술센터 지원 기금 (200만 유로, 약 28억 원)
- 지자체 내 시각예술 분야 지원 (160만 유로, 약 22억 5,000만 원)
- 뱌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현대 미술관 지원 (250만 유로, 약 35억 원)

3) 문화재·건축 분야 : 총 5억 2,500만 유로 (약 7,360억 원)

- 건축분야 지원 (3억 3,100만 유로, 약 4,540억 원)
- 문화재 분야 지원 (1억 3,100만 유로, 약 1,837억 원)
- 문화재 기금·문화재 복원 사업 지원 (7,500만 유로, 약 1,000억 원)
- 국립 문화재 지원 (4,200만 유로, 약 588억 6,000만 원)

4) 도서 출판 분야 : 총 2억 1,700만 유로 (약 3,042억 원)

- 도서 분야 지원 (4,200만 유로, 약 588억 원)
- 서점, 출판사, 도서 배포 네트워크 개선 지원 (1억 7,500만 유로, 약 2,453억 원)

5) 영화·애니메이션 분야 : 총 3억 2,000만 유로 (약 4,486억 원)

- 영화·애니메이션 분야 전반 (총 3억 2,000만 유로, 약 4,486억 원)

6) 시청각 미디어·통신 분야 지원 : 총 9억 8,500만 유로 (약 1조 3,805억 원)

- 시청각 미디어·통신분야 전반 지원 (8억 4,500만 유로, 약 1조 1,850억 원)
- 세액 공제를 통해 광고 수익 감소로 피해입은 사업체 지원 (1억 1,000만 유로, 약 1,550억 유로)
- 지자체 TV·라디오 채널 지원 기금 (3,000만 유로, 약 420억 5,000만 원)

7) 인쇄 언론 매체 분야 지원 : 총 6억 6,600만 유로 (약 9,335억 원)

- 코로나19사태 이후 파산한 인쇄 언론 매체 배포사인 프레스탈리스(Presstalis) 지원 (1억 5,600만 유로, 약 2,187억 원)
- 세액 공제를 통해 인쇄 언론 매체 구독 장려 (2,000만 유로, 약 280억 3,500만 원)
- 인쇄 언론 분야의 친환경적 개선과 배포 네트워크 개선 (1,000만 유로, 약 140억 1,700만 원)
- 해외 프랑스 영토의 인쇄 언론 매체 분야 지원 (3,000만 유로, 약 420억 5,000만 원)

8) 문화예술 분야 전반 은행대출 보증 지원 : 총 2억 유로 (약 2,800억 2,500만 원)

(출처: 프랑스문화부, 2020.07.01.)

독일

코로나19 위기관련 문화부 지원

기존 문화예술분야 지원 조치와 함께, 문화부 예산으로 10억 유로 (약 1조 4,000억 원) 이상 투입

- 전한 프로그램(Umbauprogramm)에 2,000만 유로(약 280억 1,800만 원)
- 미래 영화 프로그램 : 1,500만 유로(약 210억 870만 원)
- 국립 문화기관 지원 : 1,500만 유로(약 210억 870만 원)
- 오케스트라 지원 : 540만 유로(75억 6,400만 원)

영화·미디어 산업 관련 연방정부·주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 * 영화제작 부문
 - 영화제작 지원비 : 1,000만 유로(약 140억 470만 원)
 - 추가 제작비용 30%까지 지원
- * 영화배급 부문
 - 조건부 상환, 무이자 대출 가능
 - 문화미디어부, 영화진흥위원회, 독일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잠정기금 마련: 300만 유로(약 42억 138만 원)
- * 영화관 부문
 - 영화분담금 납부·대출금 상환 연기

주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계 지원

연방정부의 지원정책 외에, 주정부별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계 지원

- 바이에른 : 예술가에게 3개월간 월 1,000유로(약 140만 원) 지원(04.20.)
- 브레멘 : 50만 유로(약 7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프로그램, 행사 취소로 수익이 끊긴 예술가에게 1회 2,000유로(약 280만 원) 지원(상환 불필요) (03.31.)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2,000만 유로(약 280억 원)의 문화계 지원금 (04.07.)
- 함부르크: 2,500만 유로(약 350억 원)의 특별 문화 지원책
- 바덴-뷔르템베르크: 월 1,180유로(약 165만 원) 개인 생활비 지원(3개월까지 지원),
1인 자영업자(예술가) 지원
- 작센-안할트: 자유 예술가 대상 400유로(약 56만 원) 개인당 지급
- 작센: 1,000만 유로(약 140억 원) 문화예술계 추가 지원
- 베를린: 문화 미디어 산업계 중소상공인을 위한 3,000만 유로(약 419억 8,500만 원)
규모의 긴급지원

문화예술기관 지원

- **음악저작권협회(GEMA) 지원방안:** 4,000만 유로(약 560억 원)

- 2단계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 라이브 보호우산(Schutzschirm LIVE)

- 지원대상 : 행사취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작곡가, 작사가(오페라 대본가 포함)
-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서 접수 가능
- 온라인 등록 www.gema.de/portal/app/register 사이트 등록은 매우 간단하며,
이름, 이메일 주소, 음악 저작권자인지 음악 사용자인지 선택

*라이브 보호우산(Schutzschirm LIVE) 선금지급 전제조건

- ①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이 등록된 작곡가, 작사가가 신청서 제출
- ② 2018년 회계연도에서 100유로(부가가치세 19% 제외 금액)~30,000 유로 내의
저작권료를 배당받은 저작권자는 저작권 배당 수익 중 최소 50%는 다음
세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함 : Sparte U(엔터테인먼트 음악, 무용음악),
Sparte E(클래식 음악), Sparte BM(무대 음악, 음향)
- ③ 상기 조건 충족 시, 회원은 선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은 일반적으로
2018년 회계연도에서 2번 요건 충족 시 받은 총 배당금의 100%이며,
최소 300유로(세전 금액)
- ④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협회에서 자동 계산해
온라인 포털을 통해 안내
- ⑤ 선금지급은 차후 지급되는 저작권료에서 정산되며, 승인되거나 허락된
선금지급에 대한 법적 청구 권리는 없음

• 2단계 : 코로나 지원기금(Corona-Hilfsfonds)

- 음악저작권협회는 사회적, 문화적 지원을 위해 특별기금(코로나 지원기금) 조성
- 재정난을 겪는 회원은 일회성 개인 과도기 지원금(transitional aid) 신청 가능
- 1단계 '라이브 보호우산' 지원 프로그램이나 그 외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작곡가, 작사가, 음악출판사를 지원
- 코로나19로 개인적 영향을 받은 회원은 정도에 따라 과도기 지원금으로 최대
5,000유로(약 700만 원)까지 신청 지원 가능
- 기금 신청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협회에서 제공한 신청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고려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

- **독일 오케스트라 재단(Deutsche Orchester-Stiftung):** 연주자들에게 최대 500유로(약 70만 원) 긴급지원(신청자에 한함)

- **예술가 사회보장 보험금 조정:**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예술인은 예술가사회보험조합에 변동된 예상수입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불 조건 완화 보장

- **독일 스포츠 지원재단(Stiftung Deutsche Sporthilfe):** 코로나19 위기와 관계없이 재단기금 지원이 승인 된 약 4,000명의 선수에게 능력에 따라 한 달에 최대 2,500유로(약 350만 원)까지 지원

연방정부 소상공인(예술가 포함), 연방문화미디어부, 기타 문화예술협회 지원 방안

연방정부는 예술가를 포함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방안 실시

연방문화미디어부와 기타 문화예술 협회에서도 예술가 대상 지원 실시

1.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① 1인 자영업자·소상공업자 지원

- 총 지원규모 : 총 500억 유로 규모의 연방 지원
- 지원대상 : 동 지원조치에 예술가와 프리랜서 포함
- 지원금 사용 범위 : 작업실·사무실 임차료, 리스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
- 대상별 지원 규모(무상지원)
 - 자영업자, 예술가, 5인 이하 소상공인 : 3개월간 최대 9,000유로 (약 1,280만 원)
 - 5~10인 중사 업체 : 3개월간 최대 15,000유로(약 2,100만 원)

② 유동성 지원

- 독일재건은행(KfW)이 운영하는 대출조건이 개선된 단기 유동성 자금

③ 독일재건은행(KfW) 신속대출 2020

- 신용 위험평가가 없이, 100% 연방정부 보증에 의한 신속 대출 제공
- 대출가능 범위
 - 50명 이하의 직원 종사 업체 : 최대 50만 유로(약 7억 원)
 - 50명 이상의 직원 종사 업체 : 최대 80만 유로(약 11억 2,000만 원)

④ 무료 컨설팅 서비스

- 연방경제에너지부 주도의 4,000유로(약 560만 원) 상당의 컨설팅(자문) 서비스 제공

⑤ 단축 조업 급여

- 유연 단축조업 대상 급여로, 2020.03.01.일부터 소급 지급
-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개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험비는 단축 조업 시 노동부로부터 전액 보전
- * 단축 조업 급여 : 단축 조업 급여는 고용주가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여 이에 따라 급여가 감소할 시, 국가가 단축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 지원금액 : 단축 조업 시작 전, 근로자의 마지막 월급과 근무가 단축됨으로 인해 받는 월급의 차이에서 60% 혹은 67%(자녀가 있을 시)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

⑥ 기본생계보장(Grundsicherung)¹ 신청 조건 완화

- 실업·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생계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반영한 금액 지원
 - 성인 1인 지원 금액: 432유로(약 60만 원)
 - 어린이 : 연령에 따라 250~354유로(약 35~50만 원)
- 지원조건 : 개인 유동자금(예금잔고, 현금, 정기예금, 주식, 보석, 생명보험 등)이 60,000유로(약 8,500만 원) 이하인 사람

**1 기본생계보장
(Grundsicherung)**
: 독일 사회보장 시스템 용어로,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계 보장을 해 주기 위한 제도

⑦ 부모·가족 대상 지원

- 학교·유치원 폐쇄로 자녀 돌봄을 위해 출근하지 못해 경제위기에 있는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 탄력근무, 초과수당, 휴가기간이 소진된 근로자가 12세 미만의 자녀 돌봄으로 출근불가 시, 고용주는 근로임금을 계속 지급하며 지급액은 노동부로부터 최대 2,016유로(약 283만 원, 단축조업 급여 67%)를 보전
- 간편해진 아동수당 지원
 - 근로자 소득이 가족 생계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원
 - 현 6개월간 소득 조사를 한시적으로 마지막 1개월 조사로 대체 조사

⑧ 조세부담 완화

- 세금납부 일정 연기, 사전 세금납부액 인하, 행정집행 완화
- 납세대상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행정집행(예: 계좌압류)이나 연체료 부과 등을 2020.12.31.까지 유예

⑨ 파산방지 조치

- 파산법에 따라 위기에 처한 회사의 파산신청의무를 2020.09.30.까지 중지
- 위기 영향을 받고 있는 회사에 유동성과 인센티브 제공

⑩ 임차인 보호

- 2020.04.01.~2020.06.30. 기간동안 코로나19위기로 인한 임차비 미지급 (부채)을 이유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불가

⑪ 예술가사회보험 납입금 하향 조정

- 예술가는 예술가사회보험조합에 변동된 예상수입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급이 어려울 경우 지불조건 완화 보장

⑫ 소비자 대출

- 대출계약은 법적 지급유예 규칙과 기간에 맞추어 조정

⑬ 행사 계약법 조정

- 음악, 문화, 스포츠, 기타 레저 행사 주최자가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 2020.03.08.일 이전에 구매한 티켓 소지자에게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 가능
 - 바우처는 해당 행사의 연기 혹은 다른 행사 참가 목적으로 사용 가능
 - 바우처를 2021.12.31.일까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주최자에게 바우처 금액에 대해 현금 지급 요청 가능

2. 연방 문화미디어부 차원의 지원방안



① 지원금 반환 요구 포기

- 코로나19로 인한 프로젝트 연기·취소의 경우, 정부가 지원금 반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

② 지원금 전용·지원 프로그램의 유연성

- 연방문화미디어부(BKM)는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많은 문화기관과 업체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③ 영화산업 지원

- 연방문화미디어부, 영화진흥위원회(Filmförderungsanstalt), FFA가 영화 부문별(제작, 배급, 영화관) 지원을 위한 '영화 미디어 산업을 위한 연방과 주정부 지원프로그램' 운영

④ 언론 미디어 회사를 주요 인프라(기간산업)로 인정

- 미디어회사가 파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⑤ 긴급조치 추가 자금

- 연방문화미디어부는 기존 예산 외에도 문화·미디어에 대한 추가 자금을 긴급 지원으로 제공

III

세계는 지금 [이슈 동향]

1.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에 사용되는 한국의 전통 한지(韓紙)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경제적 회복 경로 전망
3. 2020년도 고용 전망: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안정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에 사용되는 한국의 전통 한지(韓紙)

이탈리아에서는 종이류 기록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이탈리아 전통종이와 일본의 화지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전통 한지도 이탈리아 기록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한지가 이탈리아 기록유산의 보존·복원에 사용되었을까?

2014년 한국과 이탈리아는 수교 13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 문화재청과 이탈리아 문화부는 2014년 10월 15일 로마에서 문화유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RCPAL, 이하 ICRCPAL로 지칭¹)에서 ‘한-이탈리아 공동 문화유산 복원과 한지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2015년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과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ICRCPAL에 신현세 장인이 만든 경남 의령 한지 2종을 제공하고 문화재 복원력 인증 테스트를 요청했다. ICRCPAL는 다양한 시험과 적합성 검사(성분 검사, 산성도 검사, 종이 섬유분포의 균일성, 견고성, 두께, 색 변화 여부 등)를 거친 후, 제 공받은 두 종류의 한지 모두 기록유산 보존·복원 용도로 적합하다는 공식 인증서를 전달했다. 또한, 해당 한지를 활용해 이탈리아의 중요 기록유산 5종을 보존·복원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ICRCPAL 측이 의령 한지를 이용해 보존·복원했다고 밝힌 5개의 기록유산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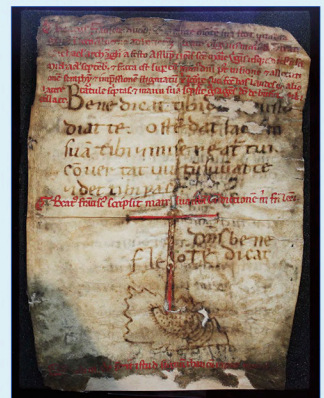
•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Chartula)** : 성 프란체스코가 1224년에 자필로 ‘하느님 찬미가’, ‘레오 수사를 위한 축복기도문’을 기록한 10x13.5cm 크기의 양피지로 하단 훼손 부분을 한지로 보강해 원형 유지

• **로사노 복음서(Codex Purpureus Rossanensis)** : 6세기 비잔틴 시대 문화재로서 31x26cm 크기의 양피지 18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채색 신약 성서본 중 하나, 한지를 사용해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 **사르데냐 가문의 문장집(Stemmario A. St. Comune Cagliari)** : 16~17세기 문화재로서 사르데냐섬의 가문학 연구를 위한 필수 자료로 평가받으며, 한지로 이 모음집의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1 유럽 내 권위 있는
이탈리아 지류복원
전문기관

성 프란체스코의 카르툴라(Chartula)



하단 훼손 부분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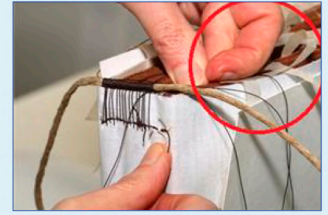
로사노 복음서(Codex Purpureus Rossanensis)



• **243 음악책**(Volume musicale 243) : 1701년 개관한 로마 카사나텐세 도서관에 보관된 17세기 243개의 악보가 들어있는 음악책이며, 한지로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 그림**(Pietro da Cortona) : 이탈리아 화가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가 그린 17세기 작품이며, 이 그림에 생긴 기름얼룩을 제거하는 데 한지 사용

한지와 면포의 조합으로 형성된 막을
본권 사이마다 넣어 책등 보강



2017년 2월, 한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한국의 지역별 대표 한지 8종을 추가로 ICRCPAL 측에 제공하고 기록유산 보존·복원 용지로 인증을 요청했다. 한국이 제공한 지역별 대표 한지 8종은 경기 가평 장지방 한지, 강원도 원주 한지, 충북 괴산 한지, 경북 문경 한지, 경북 안동 한지, 전북 전주 한지, 경남 의령 신현세 한지(기존에 제공한 한지와 다른 종류 2종)였다.

한편, 2018년 ICRCPAL 측과 바티칸 박물관은 한지를 이용해 기록유산 2개, 카타콤베 벽화 복제화 5점, 성 루카 아카데미 그림 1개를 추가로 보존·복원했음을 발표했다.

사르데냐 가문들의 문장집
(Stemmario A. St. Comune Cagliari)



책표지와 각 페이지 연결부분 보강



• **카타니아의 학위집**(Diplomi di Laurea di Catania) : 1434년 개교한 시칠리아 카타니아 대학교의 17세기에 쓰인 학위집으로, 한지로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 **에디오피아 서적**(Volume Etiopico) : 로마 근교 국립국가유물도서관에 소장된 17세기 에디오피아 양피지로 된 자필 서적으로, 한지로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 **로마 카타콤베 벽화 복제화**(Cartoni delle Catacombe Romane) 5점 : 1800년대 중반에 템페라 기법으로 종이에 복제한 37개의 시리즈 작품으로 1963년부터 바티칸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으며, 2018년 한지를 사용해 37개의 종이 복제화 중 5점을 복원

• **성 루카 아카데미 쿵쿠르 출품 270번 그림**(Disegni dell'Accademia di S. Luca) :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 중인 19세기 말 성명 미상 건축가가 그린 그림으로, 2016년에 4조각으로 찢긴 그림을 이어 붙이고 크게 소실되었던 두 부분을 복원하는 데 한지 사용

이어서 2019년에는 다음의 이탈리아 종이류 기록문화유산이 한지를 활용해 보존·복원 처리되었다.

• **마이모니데스**(Mosè Maimonide)²의 '의심 가득한 자들을 위한 지침서' (la guida dei perplessi) : 1349년 판 필서의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 **시리아 카톨릭 성서**(Libro sacro della chiesa siriana-cattolica) : 국제 카톨릭 자원봉사연맹이 소장하고 있는 카라코쉬(이라크 쿠르디안 도시) 시리아 카톨릭

2 마이모니데스(랍비 모세 벤 마이몬) : 중동 세파라드 유대인 사회의 철학자이자 의사로, 중세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연구자이자 저술가

교회 16세기 성서의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 카말돌리 수도사 도서관의 플라비오 비온도 활자 인쇄본 2권(Biblioteca dell'Eremo di Camaldoli 2 incunaboli di Flavio Biondo) : '중세(Medioevo)'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이탈리아 역사가이자 인본주의자 플라비오 비온도의 15세기 활자 인쇄본 2권의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 보강

한편, ICRCPAL 측은 적합성을 위한 다양한 시험과 검사를 거친 결과, 우리 측이 제공한 8종의 한지 중 의령 신현세 한지 신규 1종만이 보존·복원 용지로서 적합하다고 2018년 10월 발표했다. 아쉽게도 다른 한지 7종은 인증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문화재연구소는 2020년 6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을 통해 ICRCPAL 측에 전주 한지 1종을 추가로 제공하고, 7월 현재 인증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지는 이미 이탈리아 기록유산을 보존·복원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된 한지가 적합하다고 승인된다면,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의 종이류 기록유산 보존·복원에 한지가 사용될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지의 사용은 전통 계승과 더불어 한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한지가 기록유산 보존·복원을 넘어, 현지의 예술작품, 산업작품 등에도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립로마미술대학에 한지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 한지를 이용한 예술작품 제작을 장려하고 있다. 로마미술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은 자체 제작한 한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거나, 염색하거나, 조형물을 만드는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그 결과물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로마미술대학에서 전시해오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한지 예술작품 전시회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개최됐으며, 2020년 5월에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개최되지 못했다.

2017년 '한지, 세계로의 여정(Hanji, Viaggio nei territori della Carta)'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전시회는 5월 로마 한국문화원, 6월 나폴리 카스텔 누오보 성, 10월 밀라노 총영사관에서 순회전을 가졌으며, 로마미술대학교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 등은 한지를 활용한 예술작품 20점을 선보였다.

2018년 6월 로마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된 '한지, 종이위의 예술(Hanji, Opere in Carta)' 전시회는 국립로마미술대학 예술그래픽과의 리카르도 아요싸 교수와 그의 지도를 받은 석사과정 학생 4명의 한지 작품 총 27점이 전시되었다.

2019년 6월에는 '한지, 물과 색 속에서(Hanji, Nell'acqua e Nel Colore)' 전시회가 로마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었으며, 로마미술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생과 졸업생 등 미술가 총 10명이 7점의 대형 한지 작품을 전시했다.

‘한지, 물과 색 속에서(Hanji, Nell'acqua e Nel Colore)’ 전시회 개막식 (사진출처: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제공)



‘한지, 물과 색 속에서(Hanji, Nell'acqua e Nel Colore)’ 전시회 작품들 ‘한지, 물과 색 속에서(Hanji, Nell'acqua e Nel Colore)’ 전시회 관람객



로마미술대학의 예술그래픽과 교수이자, 대학 내 종이연구소 부소장인 한지 전문 교수 리카르도 아요싸 교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등에서 한지를 이용한 개인전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또한,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은 한지가 예술작품으로만 쓰이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좀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로마산업미술대학과도 협력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한지의 반투명성을 활용한 전등 커버, 커튼 대용, 동화 구형 모형, 한지의 질감을 활용한 모자, 쏯 받침 등을 제작하도록 지원했고 이런 작품들을 모아 2019년 3월에 한국문화원에서 ‘공감각(Sinestesia)’전시회도 개최했다. 다만 2020년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공감각(Sinestesia)’ 전시회 (사진출처: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제공)



한지로 만든 동화 구현 상자



한지로 만든 한국 산 풍경



이탈리아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와 협력해 2019년 6월 파브리아노에서 한지 패션쇼와 한지 공예품 전시회를 열고,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과 한국 내 한지 예술가들과의 공동전시를 추진했다. 또한,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과 전주시는 2020년 가을에 전주에서 ICRCPAL, 한국문화재단연구소와 함께 한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2021년에 국립로마미술대학, 국립로마산업미술대학의 한지 작품들을 한국 내에 소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년에는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주관 하에, 한지 관련 여러 기관과 한지 예술가들과 협력해 한지 조형물, 한지 그림, 한지 공예품, 한지 인형 등 한지를 활용한 모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대규모 한지 관련 종합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전통 한지가 이탈리아에서 더욱 사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경제적 회복 경로 전망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16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The Research Briefing : Asia Pacific Plotting recovery paths

(2020.06.17.)

발행 영 Oxford Economics(옥스퍼드 이코노믹스)¹

저자 Priyanka Kishore(프리안카 키쇼어)², Thatchinamoorthy Krshnan(타치나모르티 크리슈난)³

링크 <https://www.oxfordeconomics.com/my-oxford/publications/566933>

1 영 Oxford

Economics(옥스퍼드 이코노믹스) 기업, 금융, 정부 정책입안 등에 대해 분석해 과거 동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다국적 기업, 금융업계, 정부부처, 대학, 싱크탱크 등이 주로 자문을 요청한다.

2 Priyanka

Kishore(프리안카 키쇼어) 인도 및 동남아시아 경제학 분야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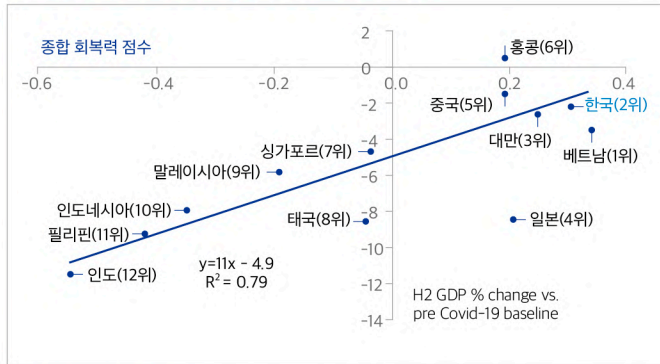
3 Thatchinamoorthy

Krshnan(타치나모르티 크리슈난) 경제학자

소개

각국의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경제 활동의 회복에 대한 조기 징후가 타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 회복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제 회복에는 오랜 시일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는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각국에 대한 회복력을 예측해 봤다. ‘보건·경제적 취약성 Vulnerability’, ‘봉쇄 정책 Stringency’, ‘거시적 경제 정책 Policy’, ‘바이러스 억제력 Containment’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취합해 ‘종합 회복력 Recovery scorecard’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보건·경제적 취약성이 낮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봉쇄 정책이 엄격하지 않으며,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보다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시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여러 재정 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왔으나, 지원의 정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북아시아는 유리한 입지에서 회복에 들어서고 있는 반면, 불리한 재정 상황 속에서 팬데믹을 직면한 신흥경제국 대부분은 대규모 집적 재정 투입을 주저하며 낮은 회복력을 보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종합 경제회복력 점수(한국 2위)



<주요 평가 요지>

• 상위국

북아시아와 베트남이 이에 속하며 바이러스 전파 억제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 베트남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베트남은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쳐 '거시경제 정책' 부분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 두 국가는 장기간의 봉쇄조치 없이 성공적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았다. 이에 따라 팬데믹 선언과 그 여파 대응을 위한 높은 재정적 지원이 불필요했다.
- 중국은 거시경제 정책에서 북아시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서 비롯된 경제적 피해가 타국보다 낮아 '보건·경제적 취약성'과 '봉쇄정책 엄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중위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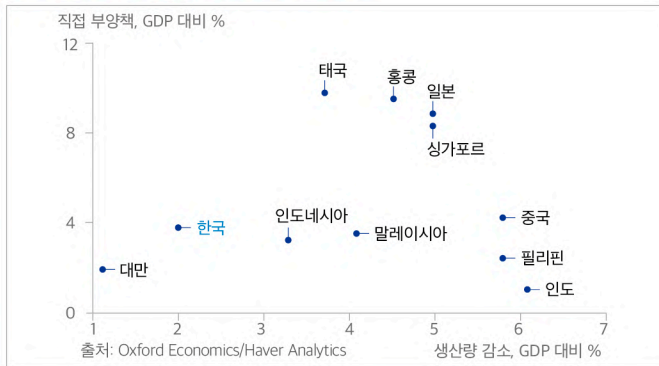
- 싱가포르는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봉쇄조치와 높은 일일 감염자수 때문에 경제 회복력 전망이 낮게 책정되었다.
-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거시적 경제 정책' 점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하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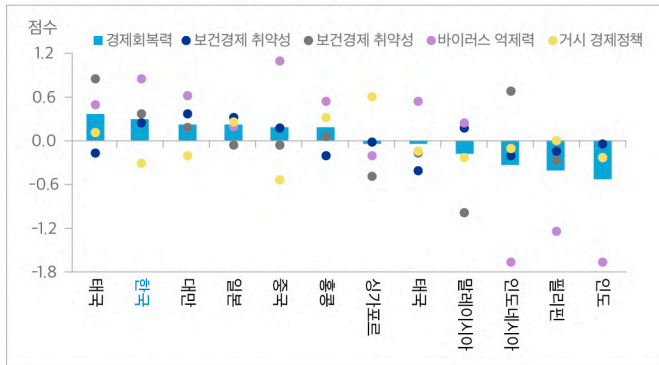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로, 이 국가들은 아직 팬데믹 사태의 정점에서 분투 중이다.

- 인도와 필리핀의 재정 정책은 상당히 빈약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봉쇄 정책을 실시 중이다.
- 인도는 경제적 회복 점수가 가장 낮으며, 아직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했다. 또한 엄격한 봉쇄정책과 약한 거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회복력이 위태로울 전망이다.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경제적 영향



아시아 국가들의 부문별 점수 및 종합 경제회복력 점수



상위 5개국의 종합 경제회복력 점수 및 부문별 점수

순위	국가	경제 회복력	보건·경제적 취약성	봉쇄 정책	바이러스 억제력	거시적 경제 정책
1	베트남	0.3	-0.2	0.9	0.5	0.1
2	한국	0.3	0.3	0.4	0.9	-0.3
3	대만	0.2	0.4	0.2	0.6	-0.2
4	일본	0.2	0.3	-0.1	0.3	0.3
5	중국	0.2	0.2	0.0	1.1	-0.5

<한계 및 결론>

- 본 보고서는 일본의 회복 전망이 약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일본경기는 2019년 4분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나타나기 전부터 침체된 상황이었다.
- 아직까지 팬데믹 사태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들은 하방위협⁴이 존재하며, 제2의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4 경제 하락을 일으키는 요인

- 베이징은 추가 봉쇄 조치를 취했으나, 경제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일부 수출주도형 국가들도 국제적 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어 성장 전망이 밝다.

2020년도 고용 전망: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안정

*본 내용은 해외문화홍보원의 “해외 싱크탱크 보고서 이슈브리핑 제17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원제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2020.07.07.)

발행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¹

링크 <https://www.oecd-ilibrary.org/sites/1686c758-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1686c758-en>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61년 파리에서 발족된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기구로,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전을 촉진해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과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 확대가 목표이다.

소개

OECD는 회원국의 노동시장 발전과 전망을 평가해 매년 『고용전망(OECD Employment Outlook)』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하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안정에 대해 분석했다. 올해 초 OECD 회원국의 고용률은 68.9%라는 최고기록을 달성했으나, 팬데믹의 여파로 1930년대 대공황만큼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통제 시나리오’와 ‘제2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2020과 2021년의 노동시장을 예측해보았다.

I. 주요 평가 요지

- **소득별** 고소득자는 하위 4분위에 비해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후자는 필수 서비스에 고용되어 오히려 바이러스 노출도가 높았고, 일을 중단하는 비율도 두 배 더 높았다. 전략에서 비로틴 경제적 피해가 타국보다 낮아 ‘보건·경제적 취약성’과 ‘봉쇄정책 엄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자영업자,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는 일자리 상실과 임금 삭감 위기에 노출되었다.
- **성별** 여성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향이 높아 더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 팬데믹 경과 코로나19로 통제가 지속되면 세계 경제 생산량은 올해 6%, 2021년 5.2%가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제2 확산이 일어날 경우, 4분기 OECD 실업률은 9.4%까지 올라 대공황 이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II. 한국 평가 요지

-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신속한 대규모 진단검사와 확진자 동선 추적 전략을 통해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도(봉쇄조치 없이) 바이러스를 통제한 유일한 사례이다.
 - 한국은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지만, 미국과 영국의 봉쇄조치는 실직률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원인이 되었다.
- 코로나19는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은 작년 4분기 대비 1.3% 하락했다.
 - 동일기간 타국 하락도: 아이슬란드 7%, 프랑스·이탈리아 5.3%, 스페인 6.2%, 독일 2.2%, 캐나다 2.1%, 미국 1.3%, 일본 0.6% 하락
- 고용에 미친 영향은 적다. 일자리 상실이 가장 높은 곳은 관광이 주요 경제 수단인 제주도였다.
 - 해고 관련 한국 점수(0~6점): 절차요구(2.2점, 보호도 높음), 퇴직금(1.0점, 낮음), 부당해고 규제법(3.0점, 높음), 부당해고규제강제력(3.3점, 보통), 평균(2.4점, 보통)

코로나19 제2확산 여부에 따른 2020~21년 노동시장 예측 (단위: %, 직전 기간 대비 변화율)

항목	GDP 실질 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변화				
년도	'19	예측				'19	예측				'19	예측			
		재유행X		재유행O			재유행X		재유행O			재유행X		재유행O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20	'21
한국	2.0	-1.2	3.1	-2.5	1.4	1.1	-0.6	0.5	-0.7	0.1	-0.1	0.8	-0.1	0.9	0.1
OECD	1.7	-7.5	4.8	-9.3	2.2	1.0	-4.1	1.6	-5.0	0.3	-0.1	3.8	-1.1	4.6	-0.1

III. 세계 전반 항목별 평가

1. 코로나19 여파로 전례 없는 변화를 겪는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 OECD 회원국은 고용 유지 제도, 병가, 실직 수당 지원, 재택근무 실시 등의 정책을 펼쳐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를 줄여 회복하고자 한다.
- 향후 경제 회복 시, 안전한 근무환경과 소득·고용 안정 보장을 우선시하고, 노동자·기업 지원, 기업 경영활동 장려, 구조조정 허용 간 균형을 갖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

2. 실업급여와 비정규직 고용: 수입 안정과 성과급 간의 균형

- 실직 근로자를 경제적으로 구제해주는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따라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제적 위험이 더 높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장려금과 소득보장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

3. 고용보장법 제정의 최근 추세

- 영어권 국가는 EU보다 해고 제한이 낮아 실직 위험이 높지만 재취업의 기회 역시 높다.
-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개선하고자 정규직의 고용보장이 철저한 경우 임시직에 대한 고용법도 엄격히 적용한다. 해고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된 경우 실업수당을 제공한다.

4. 중간기술 노동자들

- 중간기술직(트럭 운전자, 계산원, 비서)의 경우, 경력자들이 교체되거나 퇴사하는 비율에 비해 젊은 신입 노동자들의 유입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감소했다.
- 교육과 인구통계학적 구성 변화로 젊은 노동 층의 경력 패턴에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중간기술 노동자로 간주되어야 할 사람들이 저기술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 높아졌다.

5. 시장의 변화

- 직업교육훈련(VET)은 구조적 변화와 자동화 기술에 직면한 중간 기술 직종에 대비한 프로그램으로,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첫 해에 높은 취업률과 보다 나은 근무 조건을 지녔다.

IV

이달의 담론

‘세계의 기억’을 담당할,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의

‘세계의 기억’을 담당할,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과 의의

청주시에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이후로 ‘센터’로 지칭)가 설립되었다.¹ 국가기록원과 청주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센터는 유치 국가의 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카테고리2 센터로 설립되었다. (카테고리1 센터는 유네스코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운영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00년에 설립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카테고리2 센터를 보유하게 되었다.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조감도, 2022년 완공예정
(사진 출처: 국제기록유산센터 공식 누리집 참조)



청주의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앞으로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사업(Memory of the World Programme)’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시에 발굴된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며 일반인의 접근경로를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to enhance preservation of, and access to, documentary heritage)”이라는 세계기록유산 사업의 기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의 활동 범위가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와 발굴, 그리고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는 세계 각국의 기억보존기관(Memory Institution)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동시에 상호정보와 학술, 교육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센터는 기록유산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유네스코를 통한 문화외교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유산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1992년에 처음 기획되었으며

1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올해 6월 법인 등록을 마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주첨단문화사업단지 내 위치한다. 아래 사진의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물은 2022년 완공예정이다.

유네스코 유산의 종류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문화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자연유산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
복합유산	유산보호 우수사례목록	세계기록유산 국가목록

준비기간을 거쳐 1997년부터 세계기록유산등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418종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우리나라는 16종의 기록물을 등재해 공동 4위에 올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물을 등재했다. 그러나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다른 두 사업에 비해 왜소한 편이다.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 사업은 회원국이 가입한 협약에 근거해 정부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반면,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그런 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유네스코가 공포한 정관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등재 여부도 민간 전문가 14명이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와 재정 상황이 다른 유산 사업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해서는 유네스코가 심사 이전에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상황과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만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는 그런 절차가 없다. 등재는 국제자문위원회 산하에 있는 등재심사소위원회(Register Subcommittee)가 심사해 국제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14명의 위원이 투표를 통해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록유산 등재 사업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항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다분했으며, 특히 유럽 중심의 위원 위축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정부 간 협약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역사적 기록물에는 식민지, 전쟁, 학살 등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간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가적, 나아가서는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가 기록물의 등재심사에 개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 사업의 지침에는 “(국제자문 위원회가) 역사의 해석에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물의 세계사적 중요성에 입각해서 등재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 조항의 정신은 지난 20년간 충실히 지켜져 왔지만 2015년부터 동아시아의 역사논쟁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2017년의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이 사업은 당분간 동결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의 정관, 지침,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국제자문위원회는 이 작업이 끝난 후에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동결 상태에 빠진 것은 2015년에 중국의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부터이다. 신청 단계부터 이의를 제기한 일본 정부는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자 국제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개혁’을 요구했다. 요구는 단순한 항의 차원이 아니라 회원국 중에서 유네스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던 국가가 지불을 유예하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유네스코 측에서는 심각한 압력이었는데, 이미 2011년에 미국이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을 빌미로 분담금 납부를 중지하면서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압력은 2017년에 더욱 거세졌다. 파리에서 개최된 제15차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8개국,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일본군 중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언론, 우익 시민단체가 '일본군 중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 저지를 위해 치열한 활동을 벌였고, 정부 차원에서는 다시 분담금 납부 거부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등재를 유예시키고 새로운 정관과 지침이 만들어질 때까지 국제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동결할 것을 선언했다. 다른 유산사업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했는데, 2015년에 일본이 메이지 시대의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은 한국 대표단의 강제동원 사실을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정보센터 개설 시 강제동원 사실을 명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진행했지만 최근 개설된 정보센터에서는 강제동원과 관련한 어떤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는 불편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국제 사회가 동아시아의 역사논쟁이 유네스코 활동의 장에서 갈등 양상을 빚는 점에 대해 불편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120여개 회원국에게 역사논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회원국 대부분은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은 유네스코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은 분담금 납부 유예를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수사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는 인상을 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기록유산센터의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한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폭 넓은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 센터가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을 위한 포괄적인 활동을 벌이면 유네스코 활동에서 국가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더 많은 지지를 얻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센터의 설립은 단순히 기록유산 사업의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문화외교를 펼칠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필자의 희망사항을 덧붙이고 싶다. 필자는 2001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05년부터 8년간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민간인은 필자뿐이었다. 다른 참가자는 모두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담당관, 그리고 등재신청 당사자들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2013년에 임기를 마친 후 이 분야에서는 아직 민간 전문가가 배출되지 않았다. 다른 유산 사업은 전문가 여러 사람이 참여해 진행하는 반면 기록유산 사업은 등재 가능한 기록물의 발굴과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국제자문위원회와 관련 회의 참가 지원과 국내에서의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번에 설립된 센터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V

What's On KCC abroad

[재외한국문화원
8월 활동계획]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 다음 행사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영국

○ K-유튜버와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문화 (연중 | 문화원 누리집, SNS)

- 영국 현지 K-유튜버를 모집해 매월 한국문화를 즐기는 영상을 제작하고 문화원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 공유

○ 온라인 KCCUK 컬처 시리즈 (4.1.~9.30. 격주 | 문화원 누리집, SNS)

- 한복, 공예, 한식, 발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블로그를 격주로 발행하며, 문화원 누리집과 뉴스레터를 통해 영국 관객에게 한국문화 소개

벨기에

○ 문화원 체험관 설치, 운영 (8월 | 문화원 내 도서관)

- 문화원 도서관 내 체험관을 조성해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한국문화 홍보
 - * VR 자료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홍보, 추가로 영화와 오디오 자료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
-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보유 도서 증량, 도서 분야별 배치, 서가 재설치
- 체험관 내 문화행사 진행개최
 - * 현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답사 진행

○ '온라인 문학관' 시리즈 개최 (8~9월 | 한국문화원 누리집, SNS)

- 한국문학계 주요 작가들의 소개되지 않은 단편을 현지인들에게 소개
- 단순한 낭독회가 아닌 퍼포먼스·영상 등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낭독회 개최 (현지어 자막 제작)

프랑스

○ '온라인 한국문화' 플랫폼 운영 (4~9월 | 문화원 누리집)

-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를 프랑스에 지속적으로 소개해 현지에 한국문화 홍보
- 문화원 누리집 내 특별 플랫폼 개설 (공연·전시·한식·도서·교육, 분야별 콘텐츠 업데이트)
- 한국미술 관련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의 영상 시리즈를 제공하고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등에서 공연된 우수 영상 소개

○ 온라인 한국 문학 특별선 소개 (6~8월 | 문화원 누리집)

- 문화원 누리집과 SNS를 통해 매주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을 선정해 소개하고 관련 퀴즈 이벤트 개최

독일

○ 문화원 시각예술 공모전 <버추얼 담담>

(7.9.~9.10. 매주 목요일 1회 업로드 | 문화원 누리집, SNS)

- 참여작가 : 안인부흐하우스(einBuch.haus, 대표 김재경), 김유미, 김종용, Zinu Kim, 지원김, 김혜자, 박윤주, 이송이, Ukn Lee, 현미진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사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물리적인 전시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 형태로 진행
- 독일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작가, 기획자, 공간 운영자들의 활동 모습을 아카이빙

이탈리아

○ <에스터와 토피아의 한식 체험기> 영상 공개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SNS)

- 대상 : 문화원 회원, 현지 일반인
- 내용 : 한식을 처음 접하는 현지인 주인공, 현에스터와 토피아가 사진으로 한식재료 유추하기, 메뉴만으로 한식이름 맞추기, 나만의 이탈리아-한국 퓨전한식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한 영상 공개

○ 현지인과 함께하는 공동제작 프로젝트 공모전 (8~9월 | 문화원 누리집, SNS)

- 대상 : 문화원 회원, 현지인
- 내용 : 이탈리아 영화센타와 공동으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예술, 한식, 관광 등 한류콘텐츠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 제작계획서 공모, 우수작을 선정해 제작지원비 지원

스웨덴

○ 1st Swedish-Korean Film Festival (8.13.~8.16. | 영화제, 대사관 누리집)

- 한국-스웨덴 단편영화(15편)와 감독인터뷰 상영
-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국, 스웨덴 영화감독, 비평가와 온라인 채팅 진행

러시아

○ 전러시아 온라인 한국영화상영회 (6.29.~8.23. | 문화원 누리집)

- 내용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우수한 한국 영화를 알리기 위해 2주에 2~3편 씩, 총 7편의 한국영화 온라인 상영, 영화 감상문 콘테스트 병행
- 방식 : 러시아 배급사(Tilit Style)와 계약 체결후 문화원 사이트(유투브)를 통해 상영



- 상영작과 기간

- ▲ 6.29.~7.12. : 오직 그대만(2011), 끝까지 간다(2014), 사도(2015)
- ▲ 7.13.~7.26. : 내부자들(2015), 가려진 시간(2016)
- ▲ 7.27.~8.9. : 암살(2015), 살인자의 기억법(2017)
- ▲ 8.10.~8.23. : 영화 감상문 콘테스트, 선물 증정

이벤트(8.28. 우수작 발표)

※ 온라인 영화 상영회 통계 (기간 6.29.~7.14.)

- 총 조회 수 857,464건, 총 관람자 2,477명

폴란드

○ 문화원 하반기 온라인 공연프로그램 1, 2

(7.17.~8.13. / 8.14.~9.17. | 문화원 누리집)

- 재즈보컬 정원미와 국악 피리 연주자 이나연의 공연실황을 약 한 달간 문화원 누리집에 공개



(사진출처: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제공)



○ CKK 한국문화 팝업 (8.1.~8.14. | 문화원 누리집)

- 문화원 SNS에 한국어·미술·공연·영화 등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를 공유해 주재국민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 소개
- (사진출처: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제공)

헝가리

○ 헝가리 한국문화원 재개원1주년 온라인 특별기획 시리즈

<그 다음은, What's next> (8~11월 | 문화원 온라인 전시관)

- 문화원 온라인 웹사이트 구축, 한-헝가리 작가의 작품을 시리즈로 전시

※ ①한국의 사머니즘, 굿 ②The Next World/One Minute Quarantine ③Isolation/Loneliness

○ <한국문화 배달 서비스> 온라인 콘서트 (8월 중 | 문화원 SNS 채널)

- 한국 우수공연 영상과 현지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의 공연 온라인 상영

※ 8.3. 서울시무용단 NOT, 8.24. 정호승+윤소영, 8.31. 조윤성트리오

○ 한국영화 정기상영회 '코리아 무비로드' 야외 상영회

(8.10. | 부다페스트 가든 야외극장)

- 한국 영화 야외 상영

터키

○ 2020 KKM K-Pop Festival (8.29. | 온라인)

- 주재국 내 한류팬을 대상으로 한 K-Pop Festival로 보컬·댄스 부문으로 나누어 예선 (동영상 심사)과 본선(무대 경연)대회 진행

미주

미국 - 워싱턴

○ K-Culture at Home: 국악 리믹스 시리즈 (6~8월 | 온라인)

- 세계무대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은 창작국악 단체의 공연을 현지에 온라인으로 소개

※ 악단광칠(8.4.), 블랙스트링(8.18.)

미국 - 뉴욕

○ 뉴욕한국문화원x서울돈화문국악당 <Korean Music NOW> (8월 | 문화원 누리집)

- 내용 : 돈화문국악당이 선별한 11개 팀의 공연 영상을 7월부터 12월까지 격주 금요일마다 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상영
- 8월에는 악단광칠, 고래야 상연 예정

○ 한국문화체험: 온라인 무형문화유산 렉처 퍼포먼스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유튜브)

미국 - LA

○ 2020 Skirball Cultural Center, Sunset Concert with ADG7(악단광칠) (8.29. | Skirball Cultural Center Youtube 계정)

- 미주 최대 규모의 유태인 문화센터인 Skirball Cultural Center에서 여름 시즌에 운영하는 Sunset Concert에 '악단광칠' 공연 온라인 스트리밍



Free Real-time Online
Korean Classes

Summer Semester :
07/21 - 08/18 (5 Weeks)
Schedule : 7:00PM - 9:00PM (PST)
Every Tuesday

(사진출처: 주LA 한국문화원 제공)

○ 여름학기 온라인 한국어 화상강의 운영 (7.21.~8.18. | 문화원 누리집)

- 대상 : 18세 이상 미 현지인
- 내용 : 미 현지인을 대상으로 Zoom을 이용한 실시간 한국어 화상강의 실시(초급 3개 반, 중급 3개 반, 고급 2개 반 운영)

캐나다

○ Virtual K-Culture, Korea in my kitchen 이벤트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와 연계해 SNS를 활용한 한식 레시피를 소개하고 참여자가 직접 요리영상을 게시하는 이벤트 진행

○ Virtual K-Culture, 한국영화 특별상영회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 문화원 누리집에 별도 구축한 한국영화 온라인 사이트를 연결해 7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3회에 걸쳐 총 9편의 한국영화 상영

브라질

○ 2020년 한국의 날 (8.15. | 문화원 온라인 플랫폼, SNS)

- 참석자 : 주상파울루총영사, 재브라질한인회장, 교민단체장 등
- 내용 : 온라인 공모전(한국화, 민화, 서양화, 서예, 도예, 공예 디자인, 포스터, 일러스트 등), 행시 짓기(광복절, 대한민국 등으로 3행시 및 4행시), 광복절을 주제로 한 사·산문 공모전
- 진행 : 10일간(7.20~7.30.) 사전접수 후 8월 15일에 온라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멕시코

○ 제1회 한-멕 그림책 번역대회 (7.20.~9.30. | 문화원 누리집, SNS)

- 한국의 그림책과 멕시코의 그림책을 각각 상대국의 언어로 번역해 출간, 출판작은 심사 후 시상 진행
- 번역 작품 제출(7.20.~9.30.), 심사(10월), 시상(11월)

아르헨티나

○ 제2회 한국영화 평론공모전회 (8.3.~9.6. | 문화원 누리집, SNS)

- 한국영화제 연계행사로 평론공모전 개최, 수상자에게 상품·상장 수여

상하이

○ 한류 문화제 <K-Fashion> 진행 (8.8.~9.7. | 상하이 내 한인 타운 홍첸루)

- 총 5개 섹션(K-Food, K-Fashion, K-Music, K-Living, K-Beauty)으로 한국문화홍보 행사 개최

○ 한·중 수교 28주년, 한·중 문화교류 '17초 영화제' 개최

(7.20.~8.19. | 온라인 도우인(Tiktok), 문화원 SNS)

- 상하이무역협회와 공동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지 젊은 층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중 문화교류 내용을 담은 17초 영상 공모전 개최

홍콩

○ 한글을 담은 서화 (7.7.~8.8. | 문화원)

- 현대 서예가의 한글 캘리그래피 전시

○ <Close up Korea> 한국 지역 관광 홍보 전시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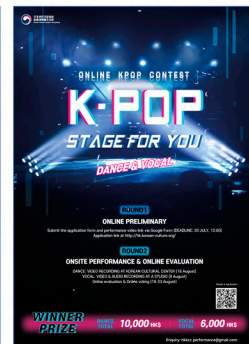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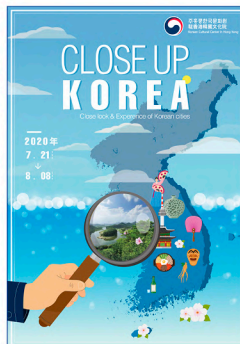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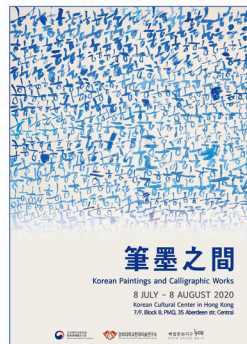
(7.21.~8.8. | 문화원 누리집, SNS)

- 홍콩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한국 관광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 방문사진·여행 수기 공모전 진행
- 관광지 정보 전시와 지역 특산물 홍보

○ 케이팝 댄스보컬 콘테스트 <K-pop Stage for You>

(7.21.~8.8. | 문화원 누리집, SNS)

- 기간/장소 : 8.8. (보컬), 8.16. (댄스) / 녹음스튜디오·문화원 다목적 홀
- 대상 : 대회 참가자 (무 관중, 녹화 진행)
- 내용 : K-pop을 좋아하는 홍콩시민을 대상으로 보컬·댄스 콘테스트 개최,
온라인 예심 진행 후 무 관중 녹화로 대회 진행 예정



(사진출처: 주홍콩 한국문화원 제공)

일본 - 동경

○ 온라인 한국문화공연 (8.6. | 온라인)

- 유튜브 스트리밍 기능을 이용해 생방송 공연 진행, 지난 첫 7월 공연에 이어 클래식과 전통을 함께 한 퓨전 무대 제공

○ 온라인 한국문화 체험교실, 한복 종이접기 (8.6. | 온라인)

- 한복의 천을 사용한 종이접기 체험교실 운영
- 동영상 강좌를 제공해 영상을 보고 직접 따라만들 수 있는 체험키트 배포, 추후 만든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는 추가 이벤트 실시 예정

○ 온라인 세종학당 배움마당 <물어보자 한국어 & 한국문화> (8월 | 온라인)

- 한국어 강좌 제공, 가족관계, 군대, 연애, 장례문화 등 일본인이 궁금해 하는 한국문화에 대해 묻고 답하는 Q&A식의 온라인 강좌 진행

일본 - 오사카

○ 한일 부부 유튜버 Talk! Talk! (8월 중 | 오사카 시내, 문화원 SNS)

- 대상 : 일본에 거주하는 한일부부 유튜버 4쌍
- 내용 : 한일 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일부부 유튜버를 초청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한일 문화 차이, 한일 관계의 지향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문화원 SNS채널에 공개



(사진출처: 주오사카 한국문화원 제공)

○ 태권도 On-line 강좌 (8월 중 | 문화원 SNS)

- 태권도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시범 등 태권도 강좌를 주 2회 온라인에 게시

인도

○ 제 9회 전인도 한인도 친선 수필 경연대회 (4.23.~8.17. | 우편접수)

- 현재까지 전인도 36개주 중 33개주, 151개 학교, 2,700명 이상 참가, 8월 17일 마감

- 내용 : 내 친구에게 한국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중등부), 한국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가(고등부), 고등부 우수자 3명에게는 한국방문 프로그램 제공

○ 대사배 태권도 대회 연기 (8월중 | 러크나오 스포츠 센터)

- 인도 내 태권도 우수선수 발굴 프로그램

필리핀

○ 집에서 즐기는 K-FOOD: 맛있다! Cooking with KCC (8월 | 문화원 누리집)

- 대상 : 문화원 누리집 회원, SNS 팔로워, 현지인 등
- 내용 : 다양한 한식 요리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집에서 쉽게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영문 레시피를 제작해 게시



(사진출처: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제공)



(사진출처: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제공)

○ 집에서 즐기는 한국 문화

<KOREA at Home>

(7~8월 | 문화원 누리집, SNS)

- 대상 : 문화원 누리집 회원, SNS 팔로워, 현지인 등
- 내용 : 요일별 정해진 주제를 통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포털 사이트, 국립국악원, 세종문화회관, 국립발레단, 한국문화재단 등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화콘텐츠 홍보

인도네시아

○ 한인니 독립 75주년 기념, 청소년 단편 웹툰 공모전 (8월 중 | 문화원 누리집)

- 대상 : 웹툰에 관심 있는 주재국 청소년
- 내용 : 독립, 우호친선을 주제로 하는 웹툰 공모전 진행

○ 한인니 독립 75주년 기념, 한인니 문화교류행사

- 대상 : 한인니친선협회, 주재국민 및 한인동포 등
- 내용 : 한인니친선협회와 공동으로 광복절 기념 문화행사 진행

태국

○ 제6기 관광업계 종사자를 위한 한국어 강좌 (7~12월 | 문화원)

- 대상 :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태국인
- 내용 : 한국과 연관된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현지인을 위해 유용한 실무 한국어 교육 제공

○ 한국문화가 있는 날, 한국적인 마스크 만들기 (8월 마지막 주(예상) | 문화원)

- 조각보, 한복 천 등을 사용해 DIY 마스크 만들기 진행

카자흐스탄

○ 한국문화원과 함께 떠나는 한국여행(여수) (8.7.~ | 온라인)

- 대상 : 한국과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는 주재국민
- 내용 : 주재국민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한국여행 사진전 개최

UAE

○ 수교40주년 기념 한국현대미술 전시회 (8.18.~11.30. | 문화원 누리집)

- KOFICE 지원사업 : 트래블링코리아나츠, <오감도: 한국 미술의 다섯 풍경> 온라인 버추얼 전시회 진행

○ 백자사진전 (8.29.~11.13. | 문화원, 헤드온토펙스티벌 누리집)

- 사진작가 구본창의 백자사진(40여점) 전시, 현지 유력 사진 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 진행
(작가와의 대화, 스튜디오 영상 제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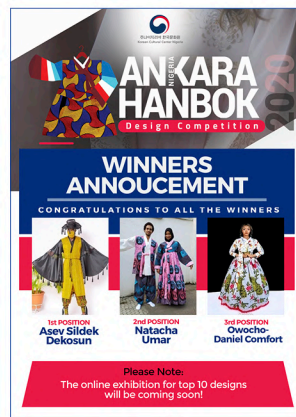
※ 연계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진행 예정

○ 나이지리아 앙카라 한복 디자인 전시회 (8.10.~8.31. | 문화원 전시장)

- 나이지리아 직물 앙카라로 제작한 한복 10점을 전시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전시

○ 한국-나이지리아 요리 영상 공모 (7.13.~8.7. | 문화원 SNS)

- 5분 이내의 한국, 나이지리아 요리 영상을 제작해 SNS에 업로드, 참가자 20명을
선정해 선물 증정



(사진출처: 주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 제공)



Vol.6

월간 해외문화정책동향

모음

2020년 8월호

발행처

해외문화홍보원
www.kocis.go.kr

발행일

2020년 8월 11일

발행인

김철민

기획 및 편집 총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최경희, 강민영
www.kofice.or.kr

외부 집필진

오충석 |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
서경호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디자인

studio 213ho
www.213ho.com

ISSN 2713-9387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KOFICE